

# 주체화, 현대화의 높은 목표를 향해

평양곡산공장은 주체화의 기치를 높이 들고나가는 공장, 현대화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가르쳐주는 교과서적인 공장으로서 온 나라에 널리 알려져있다. 얼마전 이 공장을 찾은 우리는 력사적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3차전원회의 결정을 받들고 주체화, 현대화의 보다 높은 목표를 향해 힘차게 내달리는 공장종업원들의 뜨거운 애국의 열정을 온몸으로 느낄수 있었다. 지식경제시대의 요구에 맞게 훌륭히 꾸려진 공장에는 국내에서 널리 재배하고있는 강병이를 원료로 당문제를 해결할수 있는 현대적인 생산공정이 그쯘히 갖추어져있다. 자체의 힘과 기술로 만든 첨단

을 자아내게 했다. 생산설비와 분석설비는 물론 효소배양기질과 기술, 정보체계도 자체의 힘과 기술로 척척 해나가고있는 평양곡산공장은 말 그대로 남의것이 아닌 자기의것으로 판명되어있었다. 주체화, 현대화의 본보기공장으로서 《은하수》상표를 단 갖가지 식료품들이 폭포처럼 쏟아져 나오는 광경을 바라보노라니 호뭇한 감정을 누릴수 없었다. 참으로 경제강국건설의 위대한 래일을 약속해주시는 이 공장에서의 제일주의를 높이 발휘하여 부타치는 애로와 난관을 자체의 힘으로 뚫고나가는 공장종업원들의 투쟁기풍과 일본새가 뜨겁게 깃들여있어 돌아볼수룩 깊은 감동



# 과학탐구의 열매를 더 많이



김일성종합대학의 교원, 연구자들이 공화국강건 일흔돐을 승리의 대축전으로 빛내일 일념안고 자랑찬 과학연구 성과를 련이어 이룩해가고 있다. 인민경제의 자립성과 주체성을 강화하는데 총력을 집중하며 인민생활향상에 전한을 가져올데 대한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의 올해신년사를 높이 받들고 대학의 교원, 연구자들은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서 절실히 제기되는 리론실천적, 과학기술문제들을 해결하는데 선차적인 힘을 넣으면서 많은 성과를 얻어내고있다. 첨단과학기술교류사에서는 이미전부터 진행해오던 연소모형주조기술에 대한 연구를 더욱 완성하는 한편 수입에 의존하던 연소모형주조공정설비와 자체의 국산화실현을 위한 과학기술적문제해결에 박차를 가하여 이를 실현하는 성과를 달성하였다. 이미 평양화학발전연합기업소를 비롯한 여러 공장, 기업

소들에 도입되어 큰 은을 내고있는 연소모형주조기술과 자체의 힘과 기술로 만들어낸 연소모형주조공정설비들은 얼마전에 진행된 제33차 전국과학기술축전에서 가장 우수하게 평가되었다. 지구환경과학부의 연구집단은 국가통합전력관리를 위한 전력지리정보체계를 개발하고 실천에 도입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전력생산을 정상화하고 생산전력을 효과적으로 리용하여 긴장한 전력문제를 풀어내기 위해 이들은 불꽃튀는 탐구전, 창조전을 벌여 짧은 기간에 전력지리정보체계를 개발하는데 성공하였다.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정보화, 과학화를 힘있게 다그치기 위해 경제학부의 연구집단이 고심어린 탐구의 나날들을 이어가며 대동강식료공장을 비롯한 여러 단위의 통합경영정보체계를 훌륭히 도입완성하기 위한 전투를 벌여나가고있을 때 남포청년화학연합기업소에 달려

간간 화학부 촉매화학연구집단의 연구자들은 과감한 두뇌전, 실력전으로 폴리프로필렌 합성촉매의 국산화를 실현하기 위한 연구사업에서 큰 전진을 이룩하고 그것을 공업화하기 위한 힘찬 투쟁을 벌리고있다. 평양버섯공장, 평양화장품공장, 금성트락모터공장 등의 여러 공장, 기업소들에서 이룩되고있는 많은 성과들에도 공화국강건 일흔돐이 되는 올해에 과학기술조국의 부강발전이 더 큰 기여를 하려는 대학의 교원, 연구자들의 불타는 열정이 깃들여있다. 뜻깊은 9월의 대축전장에 자랑찬 과학연구성과를 안고 몇몇이 들어선 일념일미 김일성종합대학의 교원, 연구자들은 과학탐구의 주로마다에 값높은 위훈의 자욱을 새겨가고있다.



지난 3월말 남조선의 부산에서 동아시아 축구련맹 (EAFF) 집행위원회와 총회가 진행되었다. 동아시아 축구련맹 관계자들이 모여 열린 회의에 유일한 녀성위원이 참석하여 못사람들의 눈길을 끌었다. 아시아축구계에서 무시할수 없는 지위를 차지

## 《통일신보》가 만난 사람들

### 아시아축구련맹 집행위원 한은경

그리고있는 그의 이름은 한은경 (61살), 조선축구협회 부위원장인 동아시아축구련맹 집행위원인 그를 통일신보사 기자가 만났다. 하지만 축구에 대한 예정은 언제나 가슴속에서 높고있었다. 그후 그는 대학을 졸업하고 조선올림픽위원회에서 사회생활의 첫걸음을 뒀다. 축구에 대한 애착한 지식과 열정을 모두를 감탄하게 했으며 특히 그의 외국어실력은 전문가들도 무뎠게 했다. 이어 그는 조선체육대학까지 졸업하였다.

공부에서도 첫자리를 양보하지 않았던 그는 중학교를 졸업하면서 오늘의 장거리평양상업종합대학에 입학하게 되었다. 하지만 축구에 대한 예정은 언제나 가슴속에서 높고있었다. 그후 그는 대학을 졸업하고 조선올림픽위원회에서 사회생활의 첫걸음을 뒀다. 축구에 대한 애착한 지식과 열정을 모두를 감탄하게 했으며 특히 그의 외국어실력은 전문가들도 무뎠게 했다. 이어 그는 조선체육대학까지 졸업하였다.

개 공화국의 축구도 비약적인 발전을 이룩하고있다 고 하면서 이 모든 성과는 축구에 대한 국가적관심을 떠나서는 생각할수 없다고 말하였다. 국가적으로 축구에 대해 큰 관심을 가지고 투자를 아끼지 않는 것, 이것이 공화국에서 축구발전의 중요한 요인이라고 말하였다. 그러면서 평양국제축구학교를 돌아본 다른 나라의 축구관계자들이 이렇듯 훌륭한 축구학교에서 나려나온 선수선수비들이 돈 한푼 안내고 재능을 꽃피우고있는 나라는 조선밖에 없다고, 조선의 축구선수들이 정말 부럽다고 이야기하였다고 한다. 그러면서 최근에는 평양시와 각 도(직할시)에 축구학교들이 나왔는데 더 많은 축구후비들을 양성하는데서 한몫 할것이라고 말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열화같은 동포애와 드립같은 자주통일의지로 판문점에서 평화번영과 통일의 열매를 따듯하게 마련해주신 뜻깊은 사별은 온 나라를 커다란 격동과 환희로 들끓게 하고있다. 행성을 뒤흔드는 특기할 대사를 련이어 안아오신 경애하는 원수님에 대한 다함없는 감사의 정과 통일의 열매를 넘겨주는 사람들이온데는 평양시 대동강구역 문수1동에서 살고있는 임해옥과 그의 형제들도 있다. 이 나라의 모든 가정들이 다 그러하듯이 임해옥의 집에서도 그의 형제들이 TV앞에 모여 앉아 력사적인 그 장면을 시청하며 흥분을 건질수 없었다. 《분별의 장벽이 통채로 무너져내리고 북에서 남으로, 남에서 북으로 자유롭게 오고갈 통일세상이 막앞에 보이는것만 같아요. 가슴벅찬 이 순간을 아버지께서 보셨더라면 얼마나 기뻐하셨겠나요》 임해옥이 목메 소리로 이렇게 말하였다. 그 순간 그들은 어머니조국의 품에 안겨 누리는 행복속에서도 남쪽에 두고는 형제들을 생각하며 통일

이날의 맹세를 지켜 임원순은 대학을 졸업하고 분계연선지인 황해남도에서 도급기관 일군으로 밤낮이 따로없이 일하였다.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는 그의 남모르는 수고를 높이 평가하여 그를 더 잘하라는 한량없는 믿음을 안겨주시었다. 절세위인들의 육친의 정은 흐르는 세월과 더불어 깊어만 갔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국가적인 대회들의 대표로 임원순을 불러주시고 어머니수령님의 존함을 위해 일을 더 잘하라는 한량없는 믿음을 안겨주시었다. 위대한 수령님들 그대로인 경애하는 원수님의 사랑속에 그들은 임원순의 자식들모두가 대학을 졸업하고 어엿한 일군으로 자라나 복받은 삶을 누리려고 있다. 언젠가 흥얼거린 가곡, 친척상봉장에서 임원순을 만난 남녘의 형제들은 공화국의 품속에서 행복의 단상에 올라선 그의 이야기를 깊은 감동속에 듣고나서 그의 말은 믿지 않아도 혈육의 말은 믿는다. 형님의 말을 들으니 공화국이야말로 차별과 한계를 모르고 온 겨레를 한몸에 안아 보살펴주는 참세상임을 알수 있다.》고 하였다. 임해옥과 그의 형제들은 데를 이어 누려가는 행복의 크기를 심장에 새겨안고 절세위인의 령도자 자자손손 복락할 그날을 앞당기기 위해 모든것을 다 바쳐가고있다. 본사기자 흥범 식

## 해박한 지식과 안목으로

한은경선생은 2004년에 조선축구협회 국제부 집행서기로, 2013년부터 조선축구협회 부위원장으로서 사업하고있다. 그는 2011년에 아시아축구련맹 녀성분과위원으로 선거되면서부터 아시아축구련맹에 첫발을 들여놓았다. 2013년부터는 아시아축구련맹 집행위원으로서 선서되어오며 2016년부터는 아시아축구련맹 협회위원회 부위원장직도 맡아 보고있다. 2013년부터 2016년까지 국제축구련맹 17살미만 녀자월드컵경기대회 조직위원회 위원으로 활약한 그는 현재 국제축구련맹 성원 협회 위원이기도 하다. 아시아축구련맹 위원들 가운데서 녀성위원은 5명인데 동아시아 지역에서는 그가 유일한 녀성위원이다. 축구에 대한 뛰어난 실력은 물론 정치와 경제, 외국어에 이르러까지 막히는데가 없는 해박한 지식은 그로 하여금 만장일치로 아시아축구련맹 집행위원으로 추천받을수 있게 하였다. 아시아축구련맹에서 진행하는 회의들에서 연설할 때마다 그는 뛰어난 안목과 사리정연한 분석으로 련맹위

《팬클럽입니다. 아시아실이 올해에 국제축구경기가 줄줄이 물러가지 않습니까? 그때문에 요즘 분주하답니다.》 당장은 오는 6월 중순 로씨야에서 열리는 월드컵경기대회에 참가해야 한다고 한다. 아시아축구련맹 집행위원인 동시에 국제축구련맹 성원 협회 위원인 그는 국제무대에서 진행되는 축구경기 대회들의 거의나 참가하곤 한다. 올해에 공화국의 축구선수들이 출전하는 국제축구경기들은 적지 않았다. 제18차 아시아경기대회 남녀축구경기(8~9일), 국제축구련맹 2018년 20살미만 녀자월드컵경기대회(8일), 국제축구련맹 2018년 17살미만 녀자월드컵경기대회(11일), 2018년 아시아축구련맹 16살미만 선수권대회(9~10일), 2018년 아시아축구련맹 19살미만 선수권대회(10일). 이렇게 그가 손가락을 꼽으며 축구 내리연는데 정말 2018년은 공화국에 있어서 축구의 해인것 같았다. 《국제무대에서 우리 선수들이 꼭 좋은 성과를 거두어야겠는데...》

면 남편도 젊어 한때 축구를 했던 지라 국내외에서 진행되는 축구경기에 대해 나름대로 분석을 하기도 한다. 하지만 최종결론을 내리는것은 한은경선생이다.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축구를 떠나 못사는 한은경선생이다. 그는 말한다. 《체육을 중시하는 절세의 위인을 모시며 날로 비약하는 우리 조국의 체육도 있고 축구의 밝은 미래도 있습니다. 아시아축구련맹 위원이기 전에 저는 조선사람이고 조선축구협회 부위원장입니다. 저는 명예를 원수님의 숭고한 뜻을 받들어 우리의 축구가 아시아에서만이 아니라 세계무대에서 패권을 쥐도록 하기 위해 뛰고 또 뛰겠습니다.》 본사기자 김춘경



# 대대로 안겨사는 사랑의 품

